



원자력과 언론 보도

서 두 환

한국원자력연구소 책임연구원

이본에서 지난날 원자력계에 종사하였던 저명한 인사와 보도 기관에서 활약하였던 유명한 기자들이 모여서 만든 「원자력 보도를 생각하는 모임」이 쓴 글을 읽고 느낀 바가 있어서 우리 나라 보도 기관도 이 글을 타산지석으로 삼았으면 하여 그 내용을 우리말로 옮겨 소개한다.

기사화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쓸 것인지 쓰지 않을 것인지를 판단은, 사회 발전에 유익한지 아닌지의 여하에 있다.” 신문사의 신입 사원 교육에서 선배 기자에게 그렇게 배웠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동력로·핵연료개발사업단(약칭: 동연)의 결점이 매일 차례차례로 보도되고 있다. 이러면 ‘원자력은 안전하다, 추진하자’라고 외쳐 봤자 관심은 없어지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해서 과대한 보도도 허용할 수 없다. 어떠한 기사일지라도 절도가 있는 것이다.

동연·도카이사업소의 재처리 시설에서 일어난 화재 폭발 사고가 왜 대서 특필 되었는가. 비산한 방사능으로 주변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37명의 작업자 피폭’이라 보도되었다. 일본방사선영향학회의 학자 7명은 그 37명이 받은 방사선에 의한 건강 영향을 분석하여, 97년 5월 22일 동경의 국립암센터에서 그 견해를 발표하였다. 10여개사의 보도진이 모였지만, 기사를 낸 곳은 <Japan Times>뿐이다.

‘건강 영향에는 걱정 없다’라는 내용뿐이었기 때문에

기사 거리가 되지 않았는지. 그렇다면 ‘불안을 선동질하는 것이 마스크의 역할인가’라는 비난을 들어도 별 수 없다. ‘괜찮다’라는 기사를 이미 쓰고 있었다고 변명하는 기자도 있었지만, 재확인을 위해서는 이런 발표는 하지 말아야 했다.

‘환경 오염은 걱정 없다’라는 것은 자극적인 뉴스는 아니다. 동연이 있는 도카이무라에 온 기자들은, 어떻게 지 직원의 입에서 ‘위험하다’라는 말을 나오게 유도하였다. 취재를 받은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주민의 안전 확보가 첫째이기 때문에 환경 모니터의 수치나 우리 현(縣) 공해기술센터의 수치를 봐서 대단한 일은 아니더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마스크는 부정적인 말을 유도하려고 끈덕거렸다. 괜찮다고 말하였더니 동연의 첩자가 아니냐고 호통을 쳤다. 주민은 안전 여부의 정보를 얻으려고 하고 있는데, 보도를 얻으려는 자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 우리는 안전 여부의 데이터나 판단 자료의 보도를 원하고 있다.”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는 직원의 입을 억지로 열게 하여 ‘불안하다’라고 말하도록 하는 취재 방법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불안하다고 생각되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을 모아서 기사를 쓰면 되는 것이다. 자기 발과 눈으로 데이터를 모아서 기사를 쓰지 않고, 뉴스원으로 관련 임원의 발언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왜 자기 책임의 취재를 피하는지.

이와 같은 일은 지난 5월 13일에 가고씨마현 사쓰마



현장을 확인도 하지 않고 함부로 위험성을 부추켜서는 안된다. 독자를 오해시킬 수 있다.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하고 확실한 보도를 해주었으면 한다.

도를 지나친 보도가 일본의 원전을 부정으로 몰아 넣어도 좋은지, 원전의 안전성 유지는 당연하지만,

절도 있는 보도도 당연한 것이다. 원자력 보도에서 마스크에 대한 불신의 소리가 높다.

‘말한 것과 쓴 것과는 다르다’, ‘사실과는 다르다’ 라는 소리가 많다.

과학이나 기술을 사회와 연결하는 역할은 마스크이다. 그렇게 중요한 일이 신용을 잃으면 끝인 것이다.



지역을 덮친 지진에 관한 보도에서도 느낄 수 있다. 이 때 큐슈전력의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가와우찌시에 진도 6의 지진이 있었다. 그러나 원전은 운전을 정지시키지 않았다. 지진에 대비하여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에 원자로의 흔들림이 자동 정지 기준에 미치지 않았고, 방사능 누설도 없어서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

지방 신문에는 ‘원전은 괜찮은가’, ‘원자로를 정지시켜 조사하라’는 큼직한 기사가 매일 나왔다. 진도 6을 기록한 가와우찌시내의 감각으로 봐서 ‘그렇게 요동하였는데도 원자로가 정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래도 수상하다’라는 의심을 갖게 된 기자의 감각은 지당하지만, 멀리 앉아서 짓는 것처럼 기사를 쓸 것이 아니라, 현지에 달려 와서 왜 원전의 요동이 작았는지를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야 했다. 묘비가 넘어진 상태 따위로 주변의 피해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다.

가와우찌시청이 작성한 피해 지도를 보면, 원전 주변은 피해가 적었다. 지반이 단단하여 요동이 작았기 때문이다. 현장을 확인도 하지 않고 함부로 위험성을 부추켜서는 안된다. 독자를 오해시킬 수 있다.

8월 15일 오후 10시부터 45분간 NHK 교육 방송에서 내보낸 「체르노빌 원전, 숨겨진 사실」이 그 한가지 예이다. 덴마크방송협회가 제작한 TV 프로그램인데, 사상 최악인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진도4의 수직형 지진이 방아쇠를 당겼다는 내용이다.

진도4 정도의 지진은, 동경에서는 매년 한번씩은 일

어나고 있는 규모인데, 그것이 원자로를 파괴하였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방송에서 지진학자는 사고 직전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원전 사고와의 인과 관계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이처럼 모호한 내용을 왜 교육 방송에 그대로 내보냈는지, 일본의 원전을 지진을 예상하여 그 대책을 수립하여 내진성을 전문가들이 검토하였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심사에도 합격한 것이다. 이 심사에 불충분한 점이 있다는 구체적인 지적이라면 모르지만, 방송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보도가 쌓여 사회 불안이 형성되는 것이 걱정이다. 그것이 보도가 노리는 바인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동원 사고에 대한 일련의 보도에서도, TV나 신문은 다른 뉴스 거리가 없어서 그렇게 하였을 것이라고 느낄 정도로 보도하였지만, 원자력 발전은 부정하지 않았다. 일본으로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더욱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하고 확실한 보도를 해주었으면 한다.

다이에너 영국 황태자비의 사고사 배경에는 과잉한 보도가 있었다. 도를 지나친 보도가 일본의 원전을 부정으로 몰아 넣어도 좋은지, 원전의 안전성 유지는 당연하지만, 절도 있는 보도도 당연한 것이다. 원자력보도에서 마스크에 대한 불신의 소리가 높다. ‘말한 것과 쓴 것과는 다르다’, ‘사실과는 다르다’ 라는 소리가 많다. 과학이나 기술을 사회와 연결하는 역할은 마스크이다. 그렇게 중요한 일이 신용을 잃으면 끝인 것이다. ☸